

## 충남 유일 미타결사업장 코닝정밀소재

탕정에 위치한 코닝정밀소재는 디스플레이용 유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금속노조 충남지부에서 유일하게 2025년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곳입니다. 2025년 단체교섭은 작년 4월 2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6월 5일까지 34차 교섭을 진행했고, 2026년 단체교섭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회는 올해 4월 12일부터 정문앞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충남지부 운영위원회는 코닝정밀소재 지회를 미타결사업장 집중투쟁 사업장으로 결정하고 6월과 7월 지역 차원의 투쟁을 배치합니다. 코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코닝 자본의 노무관리와 현장통제 방식은 무노조 경영을 표방했던 삼성그룹 계열사들과 닮아있습니다. 코닝정밀소재의 옛 이름은 앞에 '삼성'이 붙었습니다. 삼성과 미국 코닝 자본이 합작하여 만든 회사에서 2014년 삼성의 지분을 코닝이 전부 인수하면서 지금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삼성 지분이 빠져도 과거 삼성 시절의 퇴행적인 인사관리 행태, 조직문화, 노무관리 인력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관리자 중심으로 노조 가입 방해 및 탈퇴 회유, 조합원에 대한 인사고과나 직무평가를 통한 승진, 임금 차별 등 부당 노동행위가 일상화되어 있는 구시대적 기업문화입니다.

## 무노조 삼성식 노조혐오와 일방통행

대표적인 것이 노사협의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삼성 계열사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지회 조합원이 전체 직원의 과반수 미달임을 악용하여 노사협의회에서 임금 등 노동조건을 결정하고 노조와의 단체교섭에서 회사는 노사협의회 선을 넘을 수 없다며 버티는 것입니다. 단체교섭은 계속 공회전합니다.

회사는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이 노사협의회결정 수준보다 높아 노조 가입률이 높아지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회사는 사활을 걸고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효용성과 존재감을 떨어지게 만듭니다. 지회는 노사협의회가 결정한 동결수준의 임금인상안과 노동조건 후퇴, 취업규칙 개악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코닝 자본은 작년 초 비조합원 중심으로 반강제적인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 변경을 하였습니다. 기존 고정외OT수당의 일부(15시간)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노조와 어떠한 협의도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반발할 것이 뻔하니 회사는 삭감후 남은 고정외OT수당중 일부를 상여금에 녹이는 방식으로 임금삭감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알팍한 꼼수이며, 현장 노동자들이 모를리 없습니다. 고정외OT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상여금은 포함되는 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이런 수법으로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임금인상이 법정최저임금 상승을 넘지 못하고 있는, 즉 사실상 임금동결입니다. 이런 회사의 헛발질이 노동조합을 찾는 노동자들이 늘어난 계기가 되었습니다.



## 소수노조 한계? 지역의 힘으로 돌파!

하지만 2천명이 넘는 현장 노동자들중 조합원은 137명에 불과합니다. 취약한 현장조직력 탓에 단체협약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파업을 무력화시키는 협정근로자 설정 문제, 임금교섭 타결시기를 미리 정해놓는 시기를 넘기면 소급적용이 안되는 조항, 현장활동이 불가능한 타임오프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위해 부실한 단체협약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것이 이번 투쟁의 목표입니다. 더 이상 권리를 빼앗길 수 없다는 절박감이 이번 투쟁을 계획했습니다.

코닝 자본은 단 한 번도 금속노조 공동요구안과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 참가에 대해 진정성있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지회 설립 이후 지금까지 충남지부장은 코닝 현장에 출입하여 우리 조합원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회사가 출입을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충남지부에서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참에 뚫을 것입니다.

코닝 조합원 동지들은 이를 악물고 금속노조 깃발을 지켜왔습니다. 비조합원들은 회사 눈치를 보며 노조 문을 두드리는 것을 주저합니다. 금속노조는 전국 18만명, 충남 1만 5천명의 단일노조입니다. 어느 현장에서도 우리는 소수가 아닙니다. 노동자가 뭉쳐서 얻어낸 승리의 경험들이 쌓이면 현장의 변화와 권리의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동지들이 보여줍시다. 동향



임금삭감 저지!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조 사수!

# 코닝정밀소재지회 투쟁승리 결의대회

## □ 1차 투쟁

- 6월 18일(목) 15시 코닝정밀소재 2단지 정문앞
- 지회 파업 조합원 + 충남지부 전체 지회 교섭위원

## □ 2차 투쟁

- 7월 29일(수) 15시 코닝정밀소재 사내 본관앞
- 지회 파업 조합원 + 충남지부 전체 지회 확대간부

